

CEO 주주서한

존경하는 NHN 주식회사 주주 여러분.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주주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NHN은 지난 8년간 혁신을 거듭하며 종합 ICT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NHN에 따뜻한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한게임을 중심으로 분할한 NHN은 2022년, 기술, 커머스, 콘텐츠, 결제/광고 등 ICT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사업은 회사를 지키는 건실한 기둥이 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는 'Global Top Tech Company'로의 도약을 위한 10년 비전을 그룹사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NHN은 앞으로도 '오늘을 만드는 기술, 사람과 호흡하는 기술'이라는 NHN의 핵심가치에 기반해, 그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난 12월말, 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29일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NHN은 클라우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오는 4월 1일자로 신설법인인 NHN 클라우드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과 맞물리며 클라우드 시장의 급팽창을 가져왔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국내 사업자간 경쟁에 더하여 글로벌 서비스까지 참여하며 경쟁의 치열함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진 시장에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NHN은 판교 NCC(NHN Cloud Center)에 이어 경남과 전남, 광주 등에 권역별 데이터센터를 2023~24년에 걸쳐 추가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 투자 및 여러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전문성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어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클라우드 사업부문의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법인의 신설은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클라우드 사업의 자금조달 전략이자 사업부문에 특화된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NHN의 의지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모기업인 NHN의 기업가치 역시 제고 시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과 호흡하는 기술”은 NHN의 핵심가치이자 경영철학입니다. NHN의 모든 경영활동은 임직원을 비롯해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HN 클라우드의 분할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HN은 주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에 부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NHN이 계속해서 추진해 온 주주환원정책을 주주 여러분들께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소통하겠습니다.

NHN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69억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2월 16일에는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동 무상증자로 4.3%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 주주환원정책을 이어나가, 올해부터 3년간 직전 사업연도 별도 기준 EBITDA의 최소 30%를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형태의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의 실행 역시 계속해서 주주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둘째, 회사는 NHN 클라우드의 상장 추진 시 주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회사는 자회사인 NHN 클라우드의 상장이 모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주주 여러분들과 충분히 형성된 후에 NHN 클라우드의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NHN 클라우드 법인의 경영 상황을 주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상장 진행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특별결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NHN 클라우드의 성장과 과실이 주주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이 성장하는 NHN 클라우드의 기업가치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 주식으로 NHN 주주 여러분께 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기업분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현재 모회사 주주에게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상장시 공모주를 우선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 여러분들이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성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규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개선되는 규제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주 여러분.

NHN은 올해 더 큰 성장을 목표로 4대 핵심사업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게임 사업 부문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P&E(Play & Earn) 시장 선점을 목표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꽃인 IP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신규 런칭합니다. 'Project WEMIX Sports'를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홀덤 장르의 모바일 게임 '더블에이포커'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금융 시장에서 국민 생활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페이코는 지난 1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페이코 자산관리'를 오픈하며 실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페이코오더, 모바일 식권, 캠퍼스존 등 그간 기반을 다져온 오프라인 전략 서비스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페이코 쿠폰, 페이코 포인트 거래를 확대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커머스 사업은 글로벌 확장을 지속합니다. NHN 커머스는 급변하는 중국 이커머스 환경 속에서도 작년 4조원의 역대 최대 연간 거래액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고, NHN글로벌 역시 세계적인 물류대란 여파에도 도소매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간 주문액 1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올해도 신규 서비스 출시와 상품 카테고리 및 지역 확장을 통해 중국, 미국 등 글로벌 B2B 커머스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술사업은 NHN 클라우드와 NHN 두레이를 포함한 CSP(Cloud Service Provider), 일본 NHN 테코러스와 북미 클라우드넥사(Cloudnexa) 중심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NHN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차와 2차 사업에서 수요기관의 최다 선택을 받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도 정부 주도의 공공 클라우드 대전환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될 계획임에 따라 NHN 클라우드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공공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NHN은 올해 ESG 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SG 위원회 설립을 통해 NHN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투명한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업의 존립가치를 단단하게 만드는 ESG 경영을 확대하며 더 큰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주 여러분들께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알려드리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주서한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8년간의 노력과 시간에 더 큰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 10년 후 'Global Top Tech Company'가 되어 있을 NHN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NHN 임직원은 올해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의 NHN의 성장 이야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HN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우진